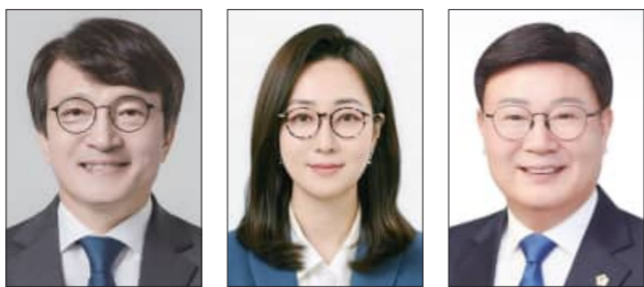


# 도내 2곳 국회의원 보궐 ‘초미의 관심’

도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군산김제부안갑 김의겸 전수미 문승우  
 군산김제부안을 박지원 이광수 강은호  
 주말~내주 공천 윤곽 전망...정청래 선택에 ‘시선’



김의겸 전수미 문승우



박지원 이광수 강은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군산김제부안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어떤 후보자를 공천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모두 지역구민의 의견보다는 중앙당 지도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전략공천이라는 점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선택에 따라 것으로 보인다.

군산김제부안갑의 보궐선거는 신영대 전 의원이 경선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낙마하면서 실시되는 보궐선거라는 점에서 당시 억울하게 패배했던 김의겸 전 새만금청장이 쉽게 공천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김 전 청장이 비례대표 의원시

절부터 군산 출마를 준비해왔고 지난 총선에서 신 전 의원과 대등한 지지도를 받았다는 점에서, 보궐선거 후보자 경선을 실시할 경우 공천은 따 놓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14개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에 대해서 전략공천을 실시하면서 군산김제부안갑의 후보자도 전략공천될 것으로 예상, 김 전 새만금청장의 공천도 불확실해졌다.

대신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임성한 군산출신의 전수미 대변인 낙점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전 대변인은 정 대표와의 두터운 친분관계 등이 강점으로 대두되면서 공

천될 것이라는 전망이 당내·외부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전북도의회 의장직을 사퇴하고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등도 당 지도부와 접촉하면서 낙점을 기대하고 있다.

또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실시되는 군산김제부안에서는 거론되는 인사는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 및 김준진 전 의원과 이광수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최수학 전 한국일보 전북본부장,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등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전략공천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수렴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지도부와 궤를 같이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빠르면 주말, 늦어도 다음주에는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북도, 1조1천억 규모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2027년 예산 확보 점검회의 개최  
 새만금 대형사업 반영 총력  
 현대차 연계 신규사업 발굴  
 부처 설득·정치권 공조 강화

전북도가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도는 29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노홍석 행정부지사, 소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점검회의를 열고, 중점사업별 쟁점 사항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국비 요구 총액 1조 1,000억 원 규모의 중점 사업 120건을 선정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 단계의 사업별 쟁점과 의견을 공유하고 신규사업 4차 발굴 결과를 보고하는 등 향후 대응 방향을 구체화했다.

중점 사업 총규모는 26조 5,013억 원(국비 21조 7,964억 원)으로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2조 4,200억 원), 새만금호 방조제 수문증설 및 조력발전(1조 1,874억 원), 새만금신항 점안시설(7,817억 원) 등 대형 사업이 다수 담겼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인 현대자동차 투자 연계 사업과 타운홀 미팅 후속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창업 스마트 공유공장 건립(1,000억 원) ▲온디맨드 제조 특화 AI전담 교육센터 운영(240억 원) ▲사용후배터리 순환이용 고도화센터(196억 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앞으로도 현대자동차 투자 연계 및 타운홀 미팅 후속 분야의 신규 사업 발굴을 이어가고, 부처안 반영을 위한 대응 논리를 즉각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5월 말 부처안 편성 마감까지 사업 반영 여부도 매일 모니터링한다.

핵심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비롯한 지휘부가 직접 중앙부처 장·차관 및 기획조정실장을 방문하고, 전화·문자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전방위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시군 및 정치권과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한 사업당 최소 5번은 방문해야 부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며 “실국 자체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정부 국경 방향에 맞게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달라”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개발공사, 개인정보보호 ‘최고등급’

전국 1,442개 기관 평가서 ‘A등급’  
 관리체계·안전조치 이행 등 우수

전북개발공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29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우수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기관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와 안전조치 이행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사는 ▲개인정보 파일 관리·등록의 적절성 및 지속적인 개선 노력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절한 수립과 이행·보안 ▲정보주체 권리의 실질적 보장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대근 사장은 “이번 A등급 획득은 전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 미래차 생산라인 ‘주목’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9일 전북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현장 점검 활동으로 완주 현대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친환경 상용차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자치도>



# 김관영 지사, 김제·완주서 모빌리티 산업 현장 점검

### 김제 클러스터 핵심 인프라 확인 완주 현대차 전주공장 방문 검사·인증 경쟁력 중요성 강조 친환경 상용차 전환 전략 점검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9일 김제와 완주를 방문, 특장차 산업과 친환경 상용차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전북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방향을 살폈다.

김 지사는 먼저 김제 백구 특장차클러스터 내 특장차 검사지원센터와 자기인증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과 기업 지원 기능을 확인했다. 김제 특장차클러스터는 약 70만㎡ 규모에 861억 원이 투입된 전국 유일의 특장차 전문 집적단지다. 관련 기업과 연구 기관이 모인 전북의 대표 산업 거점이다.

이 가운데 검사지원센터와 인증센터는 정기·종합·튜닝검사부터 성능시험까지 아우르는 핵심 인프라로, 기업의 기술 신뢰성 확보와 시장 진입을 뒷받

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금 특장차 산업은 전동화·스마트화라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라며 “검사와 인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검사·인증 체계를 바탕으로 전북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 지사는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황을 보고받고, LT2 생산라인을 살펴봤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연간 3만 6,000대 규모의 트럭·버스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상용차 생산기지다. 전북 제조업과 고용을 이끄는 핵심 축이다. 특히 2027년 양산 예정인 LT2 라인인 전기·LPG 기반 친환경 상용차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 실행, 전주공장의 미래 경쟁력을 가능케 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특별법을 활용한 출고 전 임시운



<사진=전북도>

행 허가 특례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 특례는 기존 ‘출고 후’ 중심의 임시운행 허가 체계를 ‘출고 전 단계’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외부 협력업체 특장 공정 확대 ▲생산 공정 유연성 확보 ▲제조-특장-출고 간 리드타임 단축 ▲지역 부품·특장기업 참여 확대 등 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파급 효과를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 단순 생산기지를 넘어 제도·기술·생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산업 혁신 모델을 구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주공장은 오랜 세월 전북 자동차 산업을 지탱해 온 든든한 중심축”이라며 “LT2 생산라인 신설은 친환경 상용차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윤준병 “청년 의무고용 7%로” 민간까지 확대

### 청년 의무고용제 확대법 발의 의무고용 기간 5년 연장 추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7%로 상향 조정하고,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을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고, 3%의 고용의무 비율로는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제한되어 실시되고 있는 점 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윤 의원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코로나19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일자리·주거·결혼 등 청년세대들의 문제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도, 106만 필지 전수조사…농지 투기·불법 전용 정조준

### 조사원 200명 주민참여 모집 불법전용·휴경지 집중 관리 드론·AI 활용 단계별 조사

전북도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우려 해소를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하고 조사에 참여할 조사원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1996년 1월 2일) 취득한 도내 106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정

검하고 불법 전용과 투기 우려 농지 관리체계를 강화해 경자유전 원칙 확립과 농지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기본조사, 8월부터 심층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결과 정리와 후속조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드론·위성사진,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활용해 농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심층조사에서는 현장 중심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휴경 농지, 불법전용 의심 농지, 이용현황 확인이 필요한 농지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농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조사 추진을 위해 도는 지역 여건에 밝은 조사원 약 200명을 선발해 주민 참여형 조사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원 모집은 4~5월 시군별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가능하고 현장 조사 참여가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지역 주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불법 농지 정상화와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106만여 필지에 달하는 농지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전수조사가 농지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이성운, 소년법 개정 국회 토론회 “처벌 아닌 회복”

### 축법소년 연령 논쟁 속 개최 권리보장·사회복귀 방안 모색

이성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처벌을 넘어 권리 보장과 회복 지원으로’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날 토론회는 최근 ‘축법소년 연령 하향’을 중심으로 소년범죄에 관한 공론화가 활발한 가운데, 소년범죄의 실질적인 예방과 보호소년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균택·백선희 의원, 오영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노수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과 관계부처 공무원, 소년사법 분야 연구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오영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처벌의 확대가 아닌 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소년사법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할 시기임을 짚고, “소년의 범죄나 비행은 한 사회의 거울이며, 소년법 증가와 흉포화 추세를 우리 사회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피 킬라제(Sophie Kiladze) 유엔 아



이성운 의원

동권리위원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환영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무엇이 사회 전체의 안전에 기여하는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 나선 원혜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년법 개정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관점을 제안했다. 소년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방향을 강조하며 소년사법체계에 대한 복지적 개입, 소년전문법원 도입 등 전문성을 강화한 비사법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강지명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기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김학수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과장, 김진영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권태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북도, 장수군서 민관 협력 용담호 수질개선 활동

### 장계천 일원 상류 하천 정화 민관 50여명 참여 협력 강화 오염원 점검 예방활동 병행

전북도는 29일 장수군 장계천 일원에서 용담호 수질개선 민관 실천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도민의 주요 상수원인 용담호 수질 보전을 위해 상류 하천 정화와 오염원 점검을 민관이 함께 추진한 것으로 전북자치도와 진안·무주·장수군, 전북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민간단체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장계천은 용담호로 유입되는 주요 상류 하천 가운데 하나로 도는 선제적인 수질 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정화활동

을 추진했다. 참여자들은 장계시장 인근 장계천 일대를 중심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와 환경 정비 활동을 펼치고, 생활·농업계 오염원 유입 여부를 점검하는 등 예방 중심 현장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 정화활동에 그치지 않고 상류 지역 오염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수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추진됐다.

전북자치도는 ‘용담호 수질보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반기별 수질개선 실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 기반의 오염원 관리와 현장 점검을 지속 확대해 용담호 수질 보전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 TOC 기준



<사진=전북도>

2mg/L 이하(1a등급) 수질 유지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용담호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상수원인 만큼 지

속적인 현장 관리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 생활 쓰레기가 자연분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종이 : 2~5개월



우유팩 : 5년



1회용컵, 나무젓가락 : 20년 이상



비닐봉투, 칫솔 : 100년 이상



스티로폼, 플라스틱 : 500년 이상

# 전주시 시내버스 혼잡노선 예비차 투입

5월 6일 첫 차부터  
165번·101번 노선 3대 증차

전주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혼잡노선에 예비차량을 탄력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5월 6일 첫 차부터 예비차량 3대를 활용해 주요 공공기관 경유 노선과 학생들의 통학 노선에 한시적으로 증차 운영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대중교통 이용 권장 분위기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전주시내버스 이용

객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6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공공기관이 밀집한 전북혁신도시 방면과 학생 이용이 많은 통학 노선의 경우 특정 시간대 승객이 집중되면서 차내 혼잡도가 높아지고 시민 불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활용 가능한 예비차량을 혼잡 시간대에 투입해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승객을 분산시켜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증차 대상 노선은 165번 노선과 101번 노선으로, 아침 첨두시간대에 집중 배차된다.

구체적으로 전주동물원에서 출발해 △전북대 △중앙시장 △남부시장 △평화동 △삼천동 △전북도청 △전주대 △전북혁신도시를 경유해 이서화차까지 운행하는 165번 노선에는 예비차량 2대가 투입된다. 이 노선은 주요 대학교와 전북특별자치도청, 국민연금

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전기안전공사, 식품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등 주요 공공기관이 위치한 혁신도시를 경유해 출근 시간대 이용 수요가 높은 노선이다.

시는 기존 오전 7시 9분과 7시 24분 출발 차량 사이인 7시 16분 시간에 차량을 추가 투입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 배차간격은 기존 15분에서 7~8분으로 단축된다.

시는 첨두시간대 집중배차를 통해 주요 대학교와 공공기관 방면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대기 시간과 차내 혼잡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01번 노선에도 예비차량 1대가 추가 투입된다. 101번 노선은 평화동중점에서 출발해 △성심여중고 △신흥중고 △전주여상 △한일고 △전주지방법원 △월덕점경계장 △여의동, 팔복동을 거쳐 전북대까지 운행하는 노

선으로, 주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경유하는 만큼 등교 시간대에는 학생과 일반 이용객이 집중되면서 혼잡도가 높은 노선이다.

시는 101번 노선의 오전 7시 40분과 8시 5분 출발 차량 사이인 7시 52분 출발 차량을 투입해 기존 25분의 배차간격을 12~13분 수준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등교 편의를 높이고, 승객을 분산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출근 등교 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혜민 기자

## 5월 1일 '전주 홍산로' 교통통제

'2026 세계노동절 대회'  
5월 1일 14시~16시 통제



'2026 세계노동절 대회' 5월 1일 14시부터 16시까지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일대 교통이 통제된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집회 당일인 5월 1일 오전 10시부터 행사 종료까지 KB국민은행(서전주점) 4가에서 전북도청4가까지 편도 300m 구간 3개 차로를 전면 통제하고 차량을 우회 조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이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집회 장소를 점검해 도로 통제 구간과 차량 우회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특히 집회 당일 행사장 주변 교통경찰과 순찰차를 배치해 차량 흐름을 관리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에게는 미리 우회 도로를 이용하며 현장 경찰 교통

통제와 안내에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회 장소를 지나는 시내버스 3개 노선(355, 3001, 3002)에 대해서는 롯데마트 방향으로 우회하도록 전주시내버스관리위원회와 협의를 마쳤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노동절을 시작으로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연휴기간, 각종 행사와 함께 가족 단위 나들이가 증가하며 교통관리와 교통사고 예방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는 시기라며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동물원 어린이날 연휴 특별 교통대책 추진

임시주차장 무료 셔틀버스 등  
쾌적·안전한 교통 여건 제공

전주시가 5월 황금연휴 기간을 맞아 동물원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특별 교통 대책을 가동키로 했다.

시는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5월 초 동물원을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해 민·관 합동 교통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주동물원에는 매년 어린이날 2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시는 올해 역시 비슷한 규모의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임시주차장 확충 △교통 통제 △대중교통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맞춤형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시는 방문객 주차 편의를 위해 기존 동물원(828면)과 덕진체육공원(114면), 길공원(150면) 외에도 전북대학교(2000면)와 유아중학교(200면), 북초등학교(300면)를 임시주차장으로 추가 확보해 총 6개소 3322면의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시는 주요 진입로에 경찰과 교통봉사대 등 총 122명의 현장 인력을 배치하고,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신속한 주차 안내와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전주동물원 진입 도로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셔틀버스는 어린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북대중점(차고지)을 출발해 전북대본부(건지광장)와 실내배드민턴장, 동물원, 호성주공사거리, 호성엘지하이파트, 유아중학교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운행되며, 총 8대가 10분 간

격으로 투입된다.

이를 통해 임시주차장 이용 차량의 동물원 인근 집중을 분산시키고,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는 구간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전반적인 교통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연휴 기간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동물원 방면 시내버스를 증회 운행한다.

구체적으로 79번 버스는 1일 54회, 165번 버스는 1일 112회까지 증회해 동물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혜민 기자

## 전주남부시장 '쌀그머니' 팝업 운영

판매·전시·체험·미식 결합  
복합형 팝업스토어

과거 전국의 쌀 시세를 좌우했던 전주 남부시장이 '쌀'을 주제로 한 이색 콘텐츠 실험에 나선다.

특히 전주남부시장 한복판에서는 단순한 판매를 넘어, 전시와 체험, 미식이 결합된 복합형 팝업스토어가 펼쳐질 예정이다.

전주 남부시장 백년시장 육성사업단은 오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주 남부시장 모이장 팝업스토어에서 토종쌀 팝업스토어인 '쌀그머니-토종쌀이 우리 삶에 스며드는 방식'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백년시장 육성사업인

'남부시장 콘텐츠 리빙랩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을 판매 중심 공간에서 체험·전시·문화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험적 프로젝트다.

지역 브랜드 맑음쌀상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토종쌀을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경험 콘텐츠'로 재해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행사장에는 300여 종의 토종벼 및 100여 종의 토종쌀이 전시돼 관람객이 다양한 쌀 품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행사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될 예정이다.

/정혜민 기자

## 전주시·탄소기업 '노동절' 맞아 근로자 복지 쟁킨다

참여 중소기업 근로자 전원에  
은누리상품권 전달

전주시와 탄소소재 관련 중소기업들이 함께 조성한 '탄소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참여기업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기로 했다.

기금법인은 노동절 기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법인에 참여한 4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250명 전원에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은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품권 지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전



전주시와 '탄소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참여기업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기로 했다 <사진=전주시>

락 산업인 탄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 제공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은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돼 의미를 더했다.

이와 관련 '탄소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 2월 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연금과 4개 참여 중소기업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전주시 1호 공동근로복지기금이다. 기금법인은 이번 노동절 기념 지급을 시작으로 추석 명절 등 연간 1인당 총 100만 원 수준의 복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 자동차세·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 '꼼짝 마'

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450대 목표 번호판 집중 영치

전주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이어지는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맞아 '체납은 없다, 반드시 징수한다'는 슬로건 아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시는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20만 원 이상(교통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타이어 잠금장치(일명 '족쇄')를 부착

하는 등 강도 높은 현장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에는 운행이 제한돼 체납자의 자진 납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번호판 영치 이후 단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등 징수 실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는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 등 추가적인 체납처분을 연계해 강력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의 대해서는 분납 유도 등으로 실질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현장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안정적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 전북소방본부 화재조사 "과학으로 답한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화재조사 공신력을 높이고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화재조사보고서 품질향상 영상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지난 3월 논의된 화재증거물 정밀감정 역량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9일 마련됐다.

이날 소방본부 차원의 정밀 감정 체계 구축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대응 등 더욱 실무적이고 고도화된 안전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포럼에서는 화재조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학적 감정 체계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화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민원 사례와 해결 방안을 공유하며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 강화 방안을 모색했고, 지난 23일 경기도소방학교 화재감정기관 등 선진 화재감정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습득한 감정장비 운용 노하우와 정밀 분석 절차를 토대

로 도내 실정에 맞는 감정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선 소방서의 감정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4월부터 소방본부 주관의 화재증거물 합동감정을 본격 운영해 화재 원인 규명의 객관성을 높였다.

상반기 화재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적 감식 기법들을 전파해 화재조사보고서 작성의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4월부터 본격 운영 중인 부분 합동감정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의 다양한 민원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과학적 감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신뢰할 수 있는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은 현장 중심의 실무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화재조사보고서 품질을 유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 예수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전주예수병원(병원장 신종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지난 28일 현판식을 가졌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병원의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24시간 환자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간병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외부

인 출입을 제한해 감염병 예방과 환자 안전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예수병원은 그동안 간호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병동 환경 개선, 환자 안전 관리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서비스 참여율 △간호 인력 처우 개선 △환자 만족도 및 감염 관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엄격한 평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결과다. /정소민 기자

## 전북경찰청 '교통환경 Re-바이벌' 정책 추진

교통환경 문화 재정립  
'교통불편 신고 창구' 운영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도민 중심의 '교통환경 Re-바이벌' 정책을 추진한다.

'교통환경 Re-바이벌'은 교통환경 문화 재정립을 위해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불편하고 불합리한 교통시설과 무질서로 인한 교통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교통불편 신고 창구'를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

교통불편 신고는 전북경찰청, 자치

경찰위원회, 각 경찰서, 전북도, 각 지자체 홈페이지 홍보 배너 및 현수막, 포스터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신고된 사항은 현장 점검 및 원인분석을 거친 뒤 개선을 추진하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한편 '교통환경 Re-바이벌' 주요 목적으로는 도민에게 사랑받는 믿음직한 경찰상 구현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한 교통환경 문화 개선 등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도 적극행정 '전북TP' 우수사례 선정

## 공직사회 자율적 혁신 유도... 지역 기업들과 협력 및 소통 성과

전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산하기관에 전북TP 에너지산업육성사업이 선정됐다.

전북TP 선정은 전북자치도의 △공직사회 자율적 혁신 유도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발굴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공모에서 전국적으로 최종 선정된 총 41개 기업 중 무려 11개 기업이 전북에서 배출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TP는 기업과 형성된 접점과 신뢰

를 바탕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들을 직접 방문하며 지정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전북TP는 에너지 관련 혁신기관 100여개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며 지역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테크노파크 임직원은 기업의 제출서류가 선정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밀착 코칭을 실시했다.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에 주어지는 이의신청 기회를 적극 활용해 선정 논리와 내용을 보강함으로써, 2개 사가 추가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에 기여했다.

이러한 점이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에서 높이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상식은 도민 온라인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해 오늘 전북특별자치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 국민연금공단 '연금이네 장터' 매월 운영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역 소상공인 판로지원 위한 '연금이네 장터'를 공단 본부에서 매월 열기로 했다.

'연금이네 장터'는 임직원의 지역 상품 소비 참여를 통한 소상공인 자립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장터이다.

'연금이네 장터' 지난 2018년부터 공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공단은 올해도 지난 3월 '딸기 장터'를 시작으로 4월에는 베이커리 제품을 판매하는 등 정기적으로 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개최된 장터에는 공단이 창업을 지원한 지역 농산물 활용 베이커리 '카페 샘샘', 전북지활사업단 소속 기업 등 총 14개 업체가 참여했다.

참여업체들은 하루 동안 총 445만 원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연금이네 장터' 역대 최고 매출이며, 지난해 장터 평균 일 매출 240만원 대비 85% 증가한 수치다. /정소민 기자

## 농어촌공 전북본부 '지하수자원관리' 착수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농어촌지역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인 보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하수자원관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하수자원관리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현황, 공공관정 정밀진단 등을 통해 '스마트 지하수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지역본부는 지난해까지 도내 총 42개 용수구역 지하수현황조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정읍시 소성면, 진안군 성수면 등 2개지구(5개 읍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수침투조사, 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해 농어촌용수구역의 지하수 현황을 분석하고 농어촌지하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및 농어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김동인 전북지역본부장은 "올해부터 농업용 공공관정 정밀진단과 지하수 부존조사 등을 결합한 '스마트 지하수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지하수 활용 증대 및 용수확보대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 경진원, '전북지역 고용아카데미' 개최

### 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 지역 이해도 제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전북인자위)는 2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지자체를 비롯한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전북지역 고용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전북지역 고용아카데미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고용 환경에 대응해 도내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실무 밀착형 강의와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세션으로

나뉘 진행됐다.

'구직자 성향 이해와 일자리 지원 실무' 특강에서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구직 유형별 대응 전략과 사례 중심의 해결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구직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과적인 취업 연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제공했다.

'전북도의 특별한 역사'를 주제로 한 지역 특화 강연이 마련됐다.

일자리 담당자들이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지역의 정체성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단순 행정 업무 수행자가 아닌 '지역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다.

전북지역 고용아카데미는 고용노동



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도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고용 정책을 현장에 전파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북 경제동향 발표

### 생산측면 증가 건설업민간소비 감소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2026년 1/4분기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전북 경제동향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 2026년 1/4분기 경제동향 중 △생산측면 증가 △서비스업 전분기 동일 △건설업 감소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 소폭 감소 △수출·설비투자 소폭 증가세로 나타났다.

인구수(1분기말 기준)는 172.1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3만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주(-9.6천명), 군산시(-1.5천명)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1~2월 중 출생아수는 1.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2명(+12.3%) 늘어났다.

1/4분기 중 인구 순이동(전입-전출)은 1.8천명의 순 유출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이 전주(-2.3천명)에 집중됐으며, 군산시(+0.5천명), 김제시(+0.2천명) 등은 순유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전분기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 대비 0.23%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익산과 군산에서는 누적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2026년 2월 기준 익산시와 군산시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각각 663호, 365호로 전북

(1,479호)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25.4/4분기 4.7%에서 26.1/4분기 1.8%로 하락했고 이는 주로 농산물 가격의 하락 전환과 수산물 가격 상승 폭 축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http://www.bok.or.kr)에서 지역본부-전북본부로 접속)에 수록돼 있다. /김영태 기자



## 전북상공회의소협 '비수도권 세계개편 포럼' 개최

전북상공회의소의 협의회(회장 김정태)는 4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세계개편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비수도권상공회의소의 협의회(전북·전남·경북·경남 4개 권역 상공회의소) 주최로 개최됐다.

포럼은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수도권 집중 심화에 따른 지역 격차 확대와 비수도권 경제 위기, 청년 유출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의 협의회 회장은 기업의 투자·인재·고용과 개인의 거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 제도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전환과 함께 법인세·근로소득세 등 주요 세제의 비수도권 차등 적용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 확대를 촉구했다.

행사에 앞서 전북 지역구 한병도 국회의원, 박희승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세계 개편의 필요성과 관련 입법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포럼은 강연수 중부대학교 교수(前국토연구원장)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계 개편 방안'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특히 전북 기업인을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김지혜 회장은 비수도권 기업이 체감하는 세제 불균형과 경영 부담을 지적하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차등적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지혜 회장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역 회원사들과 소통하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승구 회장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역 회원사들과 소통하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재철 도회장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회와 유기적 협력 및 소통을 통해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제16기 입학

전북 청년 창업가들의 '혁신' 함성이 무주군 향적봉에서 힘차게 울려 퍼졌다.

2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이하 전북청창사) 청년창업가들의 '26년 입학식'을 개최했다.

전북청창사는 청년들의 도전이 결실을 맺는 '성장의 요람'이자 전북지역의 청년창업을 상징하는 명실상부한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6기 입학생 42명은 4.8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정예 창업가들이다.

정에 창업가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시너지를 예고했다.

참여한 42인 창업가들은 각자의 포부를 담아 외치며 '키워드 보이즈' 선포 포로 입학식 막을 올렸다.

이날 입학식과 함께 비전리더십캠프도 열렸다.

비전리더십캠프는 △비전 △역량 △연대라는 세가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로 진행됐다. 창업가들은 창업가정신을 정립하는 비전트레이닝으로 비전 세션을 시작했다.

아울러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본 IR 스토리텔링'특강과 선배 창업가 토크 콘서트를 통해 실전 경영 노하우를 배우는 역량 강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연대 세션에서는 입학생과 선배졸업생이 참여하는 '순환형 멘토링'을 진행했다.

전북청창사는 2018년 설립 이후 8년간 381명 창업가를 배출했으며 누적 매출 858억원, 신규일자리 9577개 창출, 투자유치 46억원의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정소민 기자

### '제25회 꿈드래장애인협회 장애인 합동결혼식'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9일 '제25회 꿈드래장애인협회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는 장애인 가정의 사회적 소속감 고취 및 공동체적 유대감 강화 위해 마련됐다.

전북은행은 꿈드래장애인협회 각 사·군지부로부터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가정을 추천 받아 합동결혼식을 지원했다.

특히 전북은행은 결혼식 커플들에게 △예복 △웨딩드레스 △헤어 메이크업 등을 지원했다.

이날 200여명의 하객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마친 이들은 제주도도 2박 3일 일정의 행복만끽 여행길에 올랐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식을 미뤄왔던 가정에 이번 결혼식이 새로운 희망과 행복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합동결혼식은 29일 전주 엔터테인먼트센터웨딩홀에서 꿈드래장애인협회원들과 함께 진행됐다. /김영태 기자

### 소재철 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정책 개선 논의

건설경기 침체 속 대한건설협회장, 전북특별자치도회장, 전국 시도회장이 모여 원자재·인력난 직격탄과 정책 개선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29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과 소재철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 회장 그리고 전국 시·도회 회장들은 세종 사무소에서 전라권(전북·전남·광주) 회원사 60여명과 함께 회원 소통 및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고질적인 인력난 △건설안전특별법으로 인한 과도한 안전관리 부담 △적정 공사비 확보 등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아울러 경영난을 겪는 회원사 지원

# 도내 교육지원청,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 저조

**본청 구매율 2.21%**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평균은 1.0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이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을 담당하는 산하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절반은 법정 의무 비율조차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간 극심한 편차를 보였다.

29일 공개된 기관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본청의 우선구매 비율은 2.21%를 기록했다.

총구매액 약 1,400억 원 가운데 30억 9,600만 원가량을 우선구매에 사용해 대전(2.69%), 광주(2.5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본청 평균인 1.19%를 훌쩍 넘는 수치이자 법정 의무구매 비율인 1.1%를 두 배 이상 상회하는 기록이다.

그러나 산하 교육지원청들의 실적은 본청의 성과를 따라가지 못했다. 도내 교육지원청의 평균 우선구매 비율은 1.05%에 그쳐 법정 의무 비율(1.1%)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진안(0.39%), 순창(0.56%), 부안(0.59%), 무주(0.60%), 완주(0.64%) 등 절반인 7곳의 지원청이 1%의 벽을 넘지 못하며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

현행 제도는 공공기관이 관련 특별법에 따라 매년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청의 경우 관급자재와 일반 사무용품 영역으로 구매 품목을 넓혀 실적을 견인했지만, 산하 기관으로의 제도 안착과 확산은 과제로 남았다.

전북교육청 최선자 재무과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는 단순한 물품 구매를 넘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 참여를 독려해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군산 탱고 마라톤' 내달 1일 개최

국제 탱고 동호인 교류

국제적인 탱고 동호인들의 교류 행사인 '2026 군산 탱고 마라톤'이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군산 비어포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군산이 구축해온 '로컬맥주 도시' 브랜드를 국내외에 확산하는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군산은 지역에서 생산된 보리를 활용한 '군산맥주'와 대표 축제인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도시 정체성을 구축해

왔다. 여기에 탱고라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가 결합되면서, 도시 브랜드의 다양성과 완성도를 한층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 20여 개국에서 100여 명, 국내 300여 명 등 총 4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 대부분이 3일간 군산에 체류하며 행사에 참여하는 만큼, 숙박·외식·관광 등 지역 상권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소비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전북교사 38.9% "미래교육 부적절"

**교사 64.5% "실적 위주 행정에 어려움" 호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미래교육' 정책이 교육 현장의 실제 수업 수요를 외면한 채 스마트 기기 활용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도내 교원단체들은 29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북 교육과제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의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중심 미래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응답 교원의 38.9%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적절하다'는 긍정 응답은 22.9%에 그쳤다.

교사들은 정책 추진 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기기 보급과 활용 실적 중심 운영(64.5%)'을 압도적 1위로 꼽았다. 이어 '학생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우려(59.9%)'와 '기기 운영에 따른 행정 부담(42.5%)'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는 "교사 자율 동여이나 선

도 학교를 신청할 때조차 AI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선정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교육청이 수년간 실적을 강요해 왔다"며 "수업의 적절성과 무관하게 미디어 기기를 무조건 써야만 우수하고 미래 지향적인 수업인 것처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더라도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을 연구하는 본질적인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학생 정서 지원과 교원 업무 경감이라는 현장의 실제 요구에 맞

춰 미래교육 정책의 궤도를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는 미래교육 외에도 교육활동 보호와 인사제도 등 교육 현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담겼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촉구했으며, 최근 개편된 승진 가산점 등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놓여온 소규모 학교의 근무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성민 기자

## 천호성 "체험학습 사범 책임, 교육청이 분담하겠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현장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사범적 책임을 교육청이 분담하는 정책을 29일 발표했다.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하도록 안전과 행정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천 예비후보는 가칭 '전북체험교육센터'를 설립해 전문지도사가 현장 인솔과 행정 절차를 전담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제도적 장치로는 '학교 안전사고 처리



천호성 예비후보

특례제' 도입을 약속했다. 고의나 중과실 없는 사고에 대해 교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모든 학생과 교사가 보장받는 통합 단체보험 자동 가입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 도체육회, 베스트웨스턴플러스 호텔과 협력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와 베스트웨스턴플러스 호텔이 체육인 복지 증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9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호텔과 상호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양 기관이 체육·관광 활성

화와 전주 하계올림픽 성공 유지를 위해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북을 방문하는 선수단 및 임직원 숙박 할인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동 홍보 및 마케팅 협력 등이다. 이에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을 위해 전북을 찾는 선수단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체육회는 "체육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흔쾌히 도움을 주신 호텔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체육으로 하 나되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김제시, 전국 어린이 꿈나무 태권도대회 성황리에 마쳐

김제시는 2026 전국 어린이 꿈나무 태권도대회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대한태권도협회가 승인하고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이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오는 5월 23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전초전 성격의 대회로,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 선수 3,10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참가종목은 겨루기와 품새이며, 지난 25일 품새 종목을 시작으로, 26일부터는 겨루기 종목이 열렸다. 시 관계자는 "꿈나무 선수들이 5일간 보여준 뜨거운 열기와 함성이 김제에도 힘찬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유소년 체육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전국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노력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마케팅의 도시 김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유성동 "농어촌 가산점 상한 확대·순환근무제 개편"

유성동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전북교사노조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교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상한 확대와 보직교사 정원 증원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일률적인 10년 순환 근무제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감이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학교



유성동 예비후보

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적하며 교감 배치 검토와 학교통합지원센터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유 후보는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인사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 관광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 인턴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전북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무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도내 관광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 채용의 기회를 연결하기 위

해 마련됐다.

모집 규모는 총 18명 내외이며, 선정된 인턴은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3개월간 도내 관광 관련 기업에서 실무를 수행하게 된다.

선발된 인턴에게는 최소 월 216만 원 이상의 인건비가 지급되며, 3개월간의 과정을 마친 후에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각 기업별로 서류 접수 날짜는 상이하 며, 최대 5월 4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5

월 6일 전북 관광일자리 페스타 현장 면접을 거쳐 5월 2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이 전북 관광의 미래를 밝힐 인재들에게 소중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5)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 전북기총, 이남호 교육감 예비후보 공식 지지 선언

전북기독교총연합회가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전북기총은 29일 긴급 임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전남 천호성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전북기총이 이 후보를 지지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을 정면 반박하는 차원이다.

고영만 대표회장은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칠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전북 교



이남호 예비후보

육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이남호 예비후보는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은 지지하지만, 사회적 합의 없는 사안을 현장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최성민 기자

###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5대 반칙운전 근절



**새치기 유턴**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꼬리 물기**



**끼어 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전북타임스연중 캠페인**

## 정읍시, 내달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정읍시는 다가오는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 5일 정읍제일고등학교 운동장(우천 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정읍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주관하고 정읍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반짝반짝 빛나는 어린이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오전 9시 30분 신나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어우러져 아이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본격적인 행사는 점프 공연과 청소년 판소리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드론 농구, 그림북 만들기, 원예 체험, 캐릭터 네일아트 등 아이들이 흠뻑 빠져들 만한 다채로운 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또한 뽀빠이, 팝콘, 솜사탕, 아이스크림, 슬러시 등 달콤한 간식과 함께 청소년 댄스 공연, 비눗방울 공연, 무작위 추첨기 등 온 가족이 다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웃고 뛰어놀 수 있는 즐거운 자리를 마련했다"며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이 찾아와 아이들과 함께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을 듬뿍 안고 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196,574필지 대상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군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96,574필지를 오늘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고 밝혔다.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51% 상승해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고지가는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m<sup>2</sup> 당 2,727,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공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 정읍시, 5월 한달간 '단풍미인쇼핑몰' 기획전 운영

정읍시가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과 전국 소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 우수 농특산물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해 '단풍미인쇼핑몰 5월 가정의 달 기획전'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정읍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평소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풍성한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어 가족과 친지 등 소중한 분들에게 전할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시는 행사 기간에 3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 한 고객에게 10% 장바구니 할인 쿠폰 5장을 지급하며, 새롭게 회원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5000점(포인트)을 제공하는 등 알찬 혜택을 듬뿍 준비했다.

단풍미인쇼핑몰 기획전은 전용 누리집(www.danpoongmall.kr)에 직접 접속하거나 포털사이트 검색, 정읍시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정읍 농특산물의 뛰어난 품질과 깊은 맛을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 정읍시, 바이오 산업 거점 도약

## '기초이음 프로젝트' 선정... 가치사슬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정읍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인 '기초이음 프로젝트' 국가예산 공모에 선정돼 지역 산업 성장과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기초이음 프로젝트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지역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협력 사업이다. 광역 내 인접한 시·군이 연계할 수 있는 공동 사업 모델을 발굴해 산업과 인력을 이어주고 지역 내 거점을 육

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축이 돼 정읍과 전주, 익산을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 육성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산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사업비 27억 5000만원 가운데 국비 22억원과 도비 4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9000만원은 정읍시를 포함한 3개 시·군이 똑같이 나눠 부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바이오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장 설치와 이전, 확장, 연구개발(R&D) 단계별 최대 50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도입에 최고 4000만원을 지원한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농·식품 특화 창업 생태계 구축

## 지원 사업인프라 통합 관리 및 단계별 교육

익산시가 청년창업을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고, 실행력 높은 정책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 거점도시' 조성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김우진 익산시 청년경제국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창업기업의 발굴부터 육성, 투자 연계, 교육, 입주 공간 지원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풍부한 농생명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식품 기술(에그리-푸드테크)' 분야를 창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투자사(AC/VC)와 강력한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유망 창업기업이 익산에서 아이디어를 실증하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실질적인 투자 유치까지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익산의 창업 지원은 기관별로 공간과 장비, 교육 기능이 분산돼 있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연계 활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시는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립 예정인 15개소의 창업 지원 시설(총 337실 규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현재 206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이 방대한 인프라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분산된 지원사업과 시설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창업기업이 일시적인 유행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창업 교육도 본격화

한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익산청년시청에서 '2026년 익산형 로컬 창업스쿨'을 운영한다. 교육 과정은 창업 초기 단계에 필수적인 아이템 발굴과 기업가정신 등 기초 과정부터 세무·회계, 마케팅·브랜드, 자금 조달 등 실전 심화 과정까지 단계별로 구성된다.

특히 기업별로 총 40시간 이상의 고밀도 교육을 운영해 사업화 역량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TIPS)' 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식품뿐만 아니라 농생명·바이오, 동물용 의약품 등 익산의 미래를 책임질 주력 산업 중심의 유망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김우진 국장은 "익산을 지역을 대표하는 창업 거점도시로 확실히 도약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내달 4~20일까지...

만기 시 총 1,440만원 수령

군산시가 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참여자를 내달 4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3배에 달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이다.

대상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의 지원금을 함께 적립한다.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합산한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만기 시 지원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 유지, 본인 적립금 납입,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 청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이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



<사진=군산시>

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종자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 익산 중앙동 '치킨로드 잔치' 개최

내달 16~17일 열려...

QR 결제 시 10% 페이백

익산시가 내달 16~17일 이틀간 치킨과 문화의 만남을 통해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시는 구도심 활성화와 치킨로드 홍보를 위해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슬기로운 치킨로드 잔치'가 시월의 우리'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앙동의 옛 정취를 추

억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먹거리·문화 공연 축제로 기획됐다.

축제 기간 중앙동 일대에서는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슬기로운 RPG 게임 △버스킹 공연 등 참여형 이벤트가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장은 치킨로드 사업자와 문화예술의 거리 소상공인들이 대거 참여한다. 가족·비즈 공예 등 다양한 공방 체험은 물론, 익산을 대표하는 치킨 등

닭요리와 시원한 맥주 등 풍성한 먹거리 부스가 운영돼 축제의 맛을 더한다.

특히 지역 화폐인 익산다이로움 쿠폰(QR) 결제 시 결제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다이로움 페이백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더욱 실속 있는 축제 나들이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우진 익산시 청년경제국장은 "과거 변성했던 영정동 거리처럼 중앙동 치킨로드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전국적인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익산시>

## '2026 익산 서동축제' 1일 개막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2026 익산 서동축제'가 내달 1일 개막해 3일간 도심을 무대로 천년의 사랑 이야기를 펼친다.

익산시는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중앙체육공원·신흥공원 일원에서 '2026 익산 서동축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을 주제로 백제 무왕(사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도심형 역사문화 축제로 꾸며진다. 개막 첫날 오후 5

시부터는 어양공원에서 중앙체육공원 등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도심 행렬 '그레이트 썸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각 참여팀이 개성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퍼레이드 이후에는 개막식과 축하공연이 이어져 화려한 무대 연출과 함께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축제 기간에는 △무왕제례 △전국 서동선대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시민 기획단이 참여하는 로테이션 소개팅 등도 마련돼 시민 주도형 축제로서 의미를 더한다.

아간에는 공원의 경관조명과 신혼 무지개 정원의 레이저 쇼가 어우러져 낮과는 또 다른 환상적인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 서동축제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 사랑 이야기를 담은 익산의 대표 축제"라며 "방문객이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가정의 달 이벤트

"커피 쿠폰 받아 가세요"

정읍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읍시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금을 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소중한 가족과 고향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더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5월을 고향사랑기부제로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시가 아닌 타지역 거주자가 정읍시

에 10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행사에 자동으로 응모된다.

시는 이벤트 기간 기부자 가운데 1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메가커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6월 2일 정읍시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발표된다.

시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은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함께 떠올리는 따뜻한 시기"라며 "이번 행사가 정읍에 훈훈한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돼 더 많은 분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그린바이오산업 선도 '집중'

익산시가 그린바이오산업 거점 도시 도약을 위해 저변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익산시는 벤처기업 창업·성장 지원, 첨단기술 기업과의 협력 모델 발굴, 중앙부처 정책 공조 등 산업 전주기를 아우르는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에서 관련 기업 40여 개사를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활성화 사업' 협약식과 투자사 모임(Meet-up)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업의 시장 안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설명회(IR)를 비롯해 컨설팅이 제공됐다.

지난 23일에는 최재용 익산시 부시장이 국내 유일 오가노이드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인증 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부설 R-GB 연구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익산시가 보유한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인프라와 기업의 첨단기술을 연계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지역 특화 자산과 혁신 기술이 결합한 상상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현장의 혁신 기술이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지역과 국가 산업 경쟁력으로 확장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라며 "익산시가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상공회의소, AI 역량강화 교육

군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용)는 지역 기업 임직원들의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과 실무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역량강화'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 및 성과력 신장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송실대학교 노경훈 교수 강사로 초청해 진행되며, 생성형 AI의 기본 이해부터 문서작성, 데이터 분석, 마케팅 콘텐츠 제작, 심층 보고서 및 PPT 작성까지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총 4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29일에는 '생성형 AI 이해 및 ChatGPT 활

용', 5월 7일에는 'Gemini 활용 및 AI 문서작성(데이터 분석 포함)', 5월 14일에는 'AI 마케팅(이미지·영상 콘텐츠 제작)', 5월 21일에는 '심층 보고서 및 PPT 작성'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상공회의소는 이번 교육이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 부안군, 생명·재산 보호 나선다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개최... 위험지역 선제적 관리

부안군은 29일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산림조합,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산림 분야의 다

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위원회에서 신규 지정 대상 10개소, 위험 요소가 해소된 4개소에 대한 심의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심의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최종 지정이 되면 집중호우 등 기후 위기에 따른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예측·관리하며 지정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점검 실시 및 대피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등급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된다. 또 군은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을 수

립하고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까지 5개월간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산림 재해의 선제적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기원 산림정원과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부터 부안의 재산과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 김제시, 이달의 소장품 '동진토조의 노래' 전시

###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서

김제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이 이달의 소장품 전시로 '소리를 넘어 기억으로, 동진토조의 노래'를 주제로 한 전시를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1968년 제작된 '동진토조의 노래'음반을 중심으로, 농업 기반 지역 공동체의 문화와 정서를 조명한다. 해당 음반은 1925년 창립된 동진토지개발조합의 창립 42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것으로, 작사자 '신석정(辛夕汀)'으로 표기돼 있으며 조합원의 결속과 지역 정체성을 담아낸 기록물이다. 특히 음반 표지에는 조합의 역사

와 전통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단합과 증산 의욕을 높이고, 공동체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어 당시 농촌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미를 더한다. 동진토지개발조합은 수리조합 형태로 출발해 농업용수 공급과 농경지 개발 등 지역 농업 기반 형성에 기여해 왔으며, 현재는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로 기능이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한 시대의 생활과 공동체의 모습을 담은 자료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 표창 수상 및 특별교부세 6천만원 인센티브 확보

고창군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상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난해 평가에서 고창군이 평

가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평가는 전국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국민신문고 운영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5개 항목 20개 지표에 대한 대면점점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가~마'등급으로 분류해 평가한다. 군은 평가에서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편의 운영', '민원정보 및 구비서류

감축', '국민신문고 민원의 체계적 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군 단위 기준 최우수 기관인 평안군을 제외하고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더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 주요 사업 설명 및 건의

고창군이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세종정부청사를 연일 방문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28일 세종시에서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중앙부처 대응 현지 전략회의'를 열어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점검했다. 이어 29일은 행정안전부 박병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을 만나 재해 예방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고수 평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290억 원) △대산 산정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308억 원) △아산 삼각지구 가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126억

원) 등 총 3개 사업이다. 김영식 권한대행은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으로 인해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고수 평탄과 대산 산정지구의 재해위험 정비사업을 건의했다. 또한 아산 삼각지구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저수지 노후화와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위험성을 강조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해 예방사업은 국가예산 확보의 최우선 과제"라며 "재해예방 사업을 포함한 고창군 현안사업이 국가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전북자치도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청, 아시아 비치게임 '동메달'

## 이영은선수, 요트 포물러 카이트 종목서 수상

제6회 아시아 비치게임이 지난 23일~29일 중국 하이난성 쉐야시에서 개막했다. 본 대회는 중국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아시아비치게임이다. 아시아 비치게임은 아시아 경기대회, 아시아 동계경기대회와 함께 아시아 올림픽평의회(OCA)가 주관하는 종합 스포츠 대회이다. 이번 아시아 비치게임 대회는 아시아 회원국 총 45개국 14개 종목, 62개 세부 종목으로 구성됐으며, 3,80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2008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회가 시작됐으며 아시아 비치게임은 해변과 해양이라는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스포츠+자연+레저'를 결합한 독특한 형태의 종합 해양스포츠 게임이다.



<사진=전북체육회>

대한체육회에서 파견한 대한요트 선수단은 총 14명이 출전해 동메달 두 개를 획득했으며 부안군청소속 이영은 선수가 요트 포물러카이트(어)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해양스포츠의 메가 부안군의 명예를 드높였다. 아시아 비치게임은 부안군 요트실업팀과의 인연이 있다. 2014년 제3회 아사

아비치게임(태국 푸켓)에서 당시 호비 16급 김근수.송민재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부안군청 이영은 선수는 이번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의 대표 기수로서 태극기를 들고 입장했다. /정경철 기자

## 부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안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17만 926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늘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부안군청 민원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안

군청 홈페이지에서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오는 6월 1일부터 25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 등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 김제시, 7개 관광 벤처기업과 '맞손'

## 인구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전사업 업무협약

김제시가 혁신 관광 벤처기업들과 협력해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체류형 관광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난 28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2026 BETTER里: 인구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전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현서 부시장과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장을 비롯해 이번 실증사업을 이끌어갈 7개 관광 벤처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김제시의 관광 생활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고한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김제시 축산면 일대에서 새로운 관광 모델을 실증할 7개 혁신 스타트업과 주요 사업 내용이 공개되며 기대를 모았다. 참여 기업 및 주요 실증 아이템은 △고결: 로컬러운지 기반 마을호텔 코디네이션 서비스 '축산 로컬러운지' 스티트: 재한 외국인 커뮤니티 연계 'K-Rice & Night-Race' 프로젝트 △디어엔테이: 마



<사진=김제시>

김제시는 지난 28일 '2026 BETTER里: 인구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을로컬 플랫폼 구축 및 시범사업 운영 △마이스팩토리: 공공 유희시설 재활용 기업 및 단체 대상 워크숍 프로그램 △문카데미: 로컬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 실험 △에프엘디 스튜디오: 콘텐츠 및 쌀 구독 기반 '오늘의 평야' 플랫폼 기능 고도화 △다리메이커: 역사·관광자원 활용 가족 단위 프리미엄 아이돌봄 체류형 상품이다.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유망 관광벤처를 발굴하고 사업

모델 실증을 지원한다. 시는 이들 기업이 지역 내에 원활히 정착해 실증을 마칠 수 있도록 행정 및 인허가를 지원하며, 차년도에는 사업을 지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홍보와 판로 개척을 도울 계획이다. 이현서 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마중물 삼아 더 많은 생활인구가 유입되는 김제만의 성공적인 로컬 관광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사진=고창군>

## 고창군 '별빛 건강체조' 본격 출발

고창군이 군민 건강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야간 생활체육 프로그램 '고창 별빛 건강체조'를 본격 추진하며 새로운 도시 브랜드 만들기에도 나섰다. 고창군과 고창군체육회는 4월부터 5월까지 시범운영으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밤 '별빛 건강체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별빛 건강체조'는 야간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생활체조와 에어로빅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생활체육 콘텐츠다. 별도의 비용이나 장비 없이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체육 프로그램을 넘어, 고창의 밤을 변화시키는 상징적 프로젝트로 주목된다. 군은 고창초등학교 운동장을 야간 생활체육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고창만의 활기찬 야간 문화와 랜드마크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별빛 건강체조는 군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건강복지 프로그램"이라며 "시범운영 이후 군민 호응에 따라 정례화 및 확대 운영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HPV 무료 예방접종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

고창군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인한 암 및 관련 질환 예방과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달 6일부터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무료 예방접종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여성 청소년 중심으로 진행되던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해, 남녀 모두가 관련 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HPV는 남녀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으며, 특히 발병 후 치료가 쉽지 않고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남성에서도 HPV 백신의 예방 효과가 확인된 만큼, 향후 감염과 관련 질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접종대상은 12~17세 여성 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 12세 남성 청소년이고,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HPV 4가 백신을 6개월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한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이번 남성 청소년 대상 확대는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암과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청소년들이 적기에 접종 받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인명피해 막는다"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응 강화

김제시가 최근 예측이 어려운 기상 이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한발 빠른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9일 관계 기관 합동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제경찰서, 김제소방서를 비롯해 김제시청 21개 유관부서가 참석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기간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재해취약지역 사전점검 △배수시설 관리상태 확인 △비상 대응체계 구축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회의 종료 후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인공 우수저류시설을 방문해 시설 운영상태와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 등 이상기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인 만큼,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예술회관, 내달 15일 기획공연 '이날치 흥보가' 개최

부안군은 내달 15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기획 공연 '이날치 흥보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통 판소리 '흥보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날치 밴드의 대표 공연으로 전통과 현대 음악이 결합된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에서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세, 아니리, '음식을 차리는데' 등 흥보가 레퍼토리와 앵콜곡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까지 이날치만의 개성 넘치는 음악 세계를 70분간 생생한 라이브로 만날 수 있다. 개성 있는 보컬과 리드미컬한 연주, 강렬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색다른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하며 티켓은 내달 7일 오전 9시부터 티켓링크 및 부안예술회관 방문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관람료는 5000원으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은 50%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공연 관련 문의는 부안예술회관(☎ 063-580-3930)으로 하면 된다. /부안=온봉기 기자

# 완주군 선거구 조정 '후폭풍'...대표성 논란

### 이순덕 군의원 무소속 출마 선언 2인→4인 선거구 통합 영향 "유권자 의사 반영 한계" 지적



이순덕 군의원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이 29일 완주군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군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며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구 통합 이후 기존 경선 결과와 그대로 적용되면서 전체 유권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존 (가) 선거구였던 삼례읍·이서면은 인구 증가로 법정 상한을 초

과했고,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 상관·구이·소양을 포함한 4인 선거구로 통합했다.

그러나 통합 이후에도 기존 경선 결과가 유지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는 결과의 정당성과 대표성이 함께 확보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의원 선거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치인인 만큼 공정성과 대표성은 그 어떤 기준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며 "이번 결단은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주민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현장 중심의 생활 정치를 강조해 온 인물로, 민원 해결과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내 기반을 다져왔다.

이 의원은 "이제 정당이 아닌 오직 주민의 선택으로 평가받겠다"며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며, 그 결과는 결국 주민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민 여러분께서 공정한 선택, 책임 있는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번 완주군 기초의원 선거는 기존 2인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로 확대된 구조 속에서 치러지며,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 나서

### 5월 한 달 신고도움창구 운영 일부 납세자 기한 3개월 연장

순창군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군청 1층 세정전산실에서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시 소득세뿐만 아니라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연금

생활자 등을 선정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납부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으며, 해당 안내문을 받고도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은 군청 내 신고도움창구를 방문하면 신고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은 경제회복 지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취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대아수목원 '새 단장' 주말 2만 인파 몰려

완주군 동상면 대아수목원이 새롭게 단장되어 지난 주말 2만 여명이 찾는 등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대아수목원은 전국 최대규모인 150Ha(45만평)의 넓은 면적에 1995년 개원해 31년째 운영되고 있다. 특히 5Ha에 분포하는 금낭화는 우리나라 최대의 자생군락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대아수목원은 3,024종의 식물들이 서식하여 생태보고일 뿐만 아니라 생태체험관, 열대식물원, 분재조각원, 수생식물원, 숲문화마루, 유아숲체험원, 숲속교실 등 다양한 식물들을 사계절 현재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북도가 운영하는 유일한 공립수목원이다.

그간 대아수목원은 30년 간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편의시설이 낡고 등산로도 정비되지 않아 방문객들이 외면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목원 생태보전자킴이(회장 최상범)를 만들어 생태보고사를 작성하는 등 수목원 복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완주지역 도의원, 군의원 및 전북산림환경연구원장 등은 수목원 개발을 위한 주민 간담회 개최, 현장 방문 등 활동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책로, 톨립·장미·수국 힐링 테마정원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 '글로벌 춘향 선발대회' 춘향제 막 올린다

### 36명 진출 본선 광한루서 진행 진·선·미 등 10개 부문 시상



지난 26일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본선진출자 전주한옥마을 홍보활동 <사진=남원시>

남원시는 오늘 제96회 춘향제의 서막을 여는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본선 무대가 광한루원 앞 특설무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라는 주제 아래, 지난 11일과 12일 치열한 예선을 뚫고 선발된 36명의 본선 진출자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매혹할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19일부터 12일간의 합숙에 돌입한 진출자들은 본선 무대를 위한 전문 트레이닝과 남원 문화 체험을 통해 '글로벌 춘향'으로서의 역량을 갈고닦았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제96회 춘향제를 알리는 열띤 홍보 활동을 펼치며, 남원을 대표하는 예미 홍보대사로서 남원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가고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본선은 36명의 진출자가 펼치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그룹 댄스 퍼포먼스로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특히 이어지는 개인 장기자랑 무대에서

는 후보들이 합숙 기간 동안 갈고닦은 각자의 개성과 독창적인 재능을 가감 없이 선보이며, 현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예능, 김나영, TIOT 등 실력과 아티스트들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진다.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시상식에서는 우정상과 기업후원상, 글로벌메이커상을 비롯해 정·숙·현, 그리고 대망의 진·선·미 등 총 10개 부문의 주인공이 차례로 가려지며 축제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매혹할 새로운 '글로벌 춘향'의 탄생을 알리는 이번 시상식은, 7일간 이어지는 제96회 춘향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의 고유한 미학이 글로벌 무대에서 화려하게 피어나는 감동의 순간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한편 제96회 춘향제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남원시 일원에서 펼쳐지며,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린다. /남원=김종원 기자

## 남원시, 춘향제 연계 농특산물 축제 개최

### 월궁광장서 직거래 장터 운영 체험·이벤트존 즐길거리 마련

남원시가 제96회 춘향제와 연계해 월궁광장서 직거래 장터 운영 체험·이벤트존 즐길거리 마련

남원시가 제96회 춘향제와 연계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 및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2026 남원시 농특산물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오늘부터 5월 6일까지 월궁광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판매·체험·공연이 어우러진 참여형 축제로 운영된다.

행사장에는 직거래 장터가 조성되어 지역 농가와 업체가 직접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을 선보인다.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해 일반 판매부스와 컨테이너 부스를 조화롭게 배치해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 존을 별도로 구성해 즐길 거리를 더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단순한 판매 행사를 넘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 완주군, 와이팜 엑스포서 귀농귀촌 상담 '호응'

### 수도권 도시민 대상 관심 집중 체험형 창업주거 지원 홍보

완주군이 최근 3일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와이팜(Y-FARM) 엑스포 2026'에 참가해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상담과 군 지원 정책 홍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박람회에는 연합뉴스와 농협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전국 단위 행사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정책 정보와 농업 동향을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군은 전국귀농귀촌중앙회와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며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완주형 귀농귀촌 정책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맞춤형 정책 설명과 상담을 통해 도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제 정착 사례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홍보관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과



<사진=완주군>

정착 단계별 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주요 홍보 내용으로는 귀농귀촌 교육 및 체험 활동, 체험형 농업 창업 지원, 귀농인의 집 및 주거 지원, 로컬푸드 기반 소득 창출 모델 등이 포함됐으며, 단계별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알려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최역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상담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오는 7월 3일부터 4일까지 aT센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에도 참가해 심층 상담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12억 투입 473ha 숲가꾸기 사업 추진

### 산림 건강·산불 대응 '두마리 토끼' 도시숲 조성 군민 휴식공간 확대

순창군이 건강하고 체계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위해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조립 이후 숲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 관리 사업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산불 예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순창군 일원 473ha 규모로 조립지 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큰 나무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총 12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조립지 내 풀베기 작업과 어린나무 생육 환경 개선, 숲아베기 및 산물 수집 등 단계별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사찰과 문화재, 공공시설, 산책로 주변 등 산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산림의 건강성 유지와 함께 안전한 산림 이용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군은 대동산 일원 유류 산림자원을 활용한 도시숲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군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녹색 휴식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산책로 조성과 수목 식재, 워터 등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과 연계해 사회적 약자층, 노약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산림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숲가꾸기사업과 도시숲 조성사업은 산림의 건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군민에게 쾌적한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산림 관리와 생활권 녹지 확충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 이서 공영주차장, '범죄 예방 최우수' 인증

### 완주군 공영주차장 첫 인증 획득 비상벨·실시간 관제 등 호평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이 운영하는 이서 혁신도시 공영주차장이 완주군 내 공영주차장 중 처음으로 '범죄 예방 최우수 시설' 인증을 획득하며 안전한 주차 환경 조성의 선도적 모델이 됐다.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완주경찰서로부터 전북 혁신도시 내 가장 번화가에 위치한 이서 혁신도시 공영주차장에 대한 범죄예방 진단을 받은 결

과, 관리 체계와 안전 시설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종 인증을 받았다.

경찰청이 주관하는 '범죄예방 최우수 시설 인증제'는 범죄예방진단단(CPO)이 직접 현장을 점검해 관리 인력의 적절성, 안심 비상벨 설치 여부, CCTV 화질, 조도 등 총 17개 항목을 정밀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에서 이서혁신도시 공영주차장은 △실시간 모니터링 관제 시스템 △비상상황 시 즉각 대응 가능한 안심 비상벨 운영 △안심심방경 등 범죄 취약요소 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완주군 내 공영주차장 중 해당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은 이번 인증에 따라 주차장 출입구에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패를 부착한다. 인증 기간은 2년이며, 향후 지속적인 시설 보안을 통해 인증을 갱신해 나갈 계획이다.

이희수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완주군 1호 인증을 시작으로 모든 공공시설물이 범죄 사각지대 없는 안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력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비료 아끼고 토양살려" 적정시비 실천 선언

### 농업인·지도기관 참여 결의대회

순창군은 29일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대강당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료사용저방 기반 적정시비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무기질 비료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우려 속에서, 토양검정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시비관리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비료 절감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생활개선회, 4-H본부, 4-H연합회, 농촌지도자회 등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생활개선회 회장이 대표로 적정시비 현장실천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함께 따라 읽고 '적정시비 실천하자' 구호를 외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특히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함께 참여해 현장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현장 주제와 지도기관이 공동으로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적정시비 확산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진 교육에서는 비료 수급 변화에 대응전략과 대책, 토양검정 기반 비료사용 방법, 비료사용처방 활용 방안 등 현장 실천 기술을 안내했다.

특히 토양검정 및 비료사용처방서는 각종 농업 지원사업 추진 시 필수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농업인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관련 상담과 처방서 발급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인 학습센터 종합분석실(063-650-5628)에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양검정과 맞춤형 비료사용처방을 통해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위기청소년 발굴 학업·생계 맞춤 지원 의결

완주군이 지난 2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완주군 청소년 복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상반기 심의 대상자는 총 6명으로 기초 생활 수급 가구, 한부모 가정, 다자녀 저소득 가구, 가정 위탁 및 조손 가정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다.

위원회는 각 가정의 소득 수준과 생활 상태, 보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업 지원과 생활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여부와 내용을 의결했다.

특히 학업 지속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생계 유지가 불안정한 가정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기간과 금액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정재운 행정자치과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임실·장수, 주민 건강복지 확대

## 임실군, 재가 암환자 지원 강화

통증·증상관리부터 건강교육까지

임실군은 재가 암환자의 건강한 일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서비스와 영양지원을 통한 따뜻한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연중 추진되고 있으며, 대상자는 발병 5년 이내의 신규 암환자 및 재가 암환자 등록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혈압·혈당 등 기초검사와 영양제 제공을 통한 영양지원 △대상자별 통증 및 증상관리 중심의 맞춤형 건강교육 △호스피스 의료기관 서비스 연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이 포함된다. 아울러 신규 암환자 확보 및 등록 관리를 통해 대상자 확대에도 힘을 기울인다. 또한 올해 7월 초 전북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색채심리치료를 주제로 재가 암환자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실군보건의료원장은 “재가 암환자에게 지속적인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집에서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와 가족이 보다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무료 피부질환 검진 실시

한센병 조기 발견 나서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지역주민의 피부 건강 증진과 한센병 조기 발견을 위해 무료 피부질환 이동검진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검진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와 연계해 추진됐으며, 피부부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참여해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와 장수가족센터를 방문하는 이동진료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진 대상은 지역 내 어르신과 가족센터 이용자 등 100여 명으로 검진은 무중, 습진, 가려움증, 피부건조증

등 일반적인 피부질환 진료와 함께 한센병 조기 발견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한센병은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신경계 합병증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으로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현장에서 약물 처방도 함께 제공했다. 특히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과 취약계층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진료 형태로 운영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건강관리 향상에 기여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장수군, 숲에서 몸과 마음 회복하다

치유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장수군은 와룡자연휴양림에서 산림치유원을 활용한 힐링 문화 확산을 위해 '치유숲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숲이 지닌 치유 효과에 건강한 식문화를 접목해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기획됐으며 참가자들은 숲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는 산림치유 활동과 함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치유음식 체험을 했다. 특히 치유음식 프로그램에서는 자연에서 얻은 신선한 재료를 활용

해 몸의 균형을 돕는 건강식을 직접 만들고 시식하는 시간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한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숲 해설과 명상, 오감 체험 활동을 병행해 참가자들이 일상 속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운영했다. 와룡자연휴양림 치유숲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는 열린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장수군을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 2026 임실N페스타 5월1일 개막

오수의견관광지에서 개최 어질리티-위그렛 미용대회 등

대한민국 반려동물 성지인 임실군에서 열리는 반려동물 문화대축제인 오수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2026 임실N페스타가 화려하게 개막한다.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반려동물의 성지인 오수의견관광지로 장소를 옮겨 개최된다. 198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41회를 맞는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페스타는 △반려동물 토크쇼.패션쇼 △FCI(세계애견연맹) 어질리티 대회 △오수 마스터즈 데이 △위그렛 미용대회 △맹맹트레이닝 등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3일간 이어지

는 반려동물 토크쇼가 있다. 1일 이웅종 교수, 2일 설재현 수의사, 3일 강형욱 훈련사를 초청해 반려동물 행동교정과 건강관리, 올바른 반려문화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관람객과의 소통을 이끈다. 또한,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려동물 패션쇼는 감성보컬 그룹 V.O.S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만드는 개성 넘치는 런웨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제대회급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돼 축제의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FCI(세계애견연맹) 어질리티 경기대회'는 반려견과 보호가 호흡을 맞춰 장애물을 통과하며 속도와 정확성을 겨루는 스포츠로 5월 2일 아마추어대회를 시작으로 3일에는 내셔널 평가전과

국제기준의 인터내셔널 대회가 이어진다. 이와함께 'KKF(한국애견연맹) 반려동물 위그렛 미용 경진대회', '오수 마스터즈 데이' 등 신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체험형 콘텐츠도 풍성하다. '맹맹학당'을 통해 반려견 아로마테라피와 화식료 만들기 등 실생활에 유용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반려동물 올림픽, 팻박람회,한방체력,인식표-목줄만들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개막공연에는 MZ 트롯가수 손빈아, 길려원, 강혜연, 케이시가 마지막날인 3일에는 '최갑석 가요제'와 함께 예능, 문화, 소망, 이미리 등이 무대에 올라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군, 5월 반디랜드 체험행사 개최

5월 4일, 25일 정상 운영 '무주의 강' 생태 설명회 등

무주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반디랜드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련 행사 진행을 위해 반디랜드 휴무일인 내달 4일과 25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5월 2일부터 5일까지 곤충박물관 상설체험실에서는 '반딧불이 목걸이 만들기'가 진행되며, 아쿠아존에서는 '무주의 강' 생태설명회와 먹이 주기가 시연이 예정돼 있다. 반디랜드 전문과학관에서는 태양흑점 관측, 달 사진찍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반디랜드 광장에 페이스페인팅, 클리커 열쇠고리 만들기, 양말목 도어벨 만들기, 커피박 열쇠고리 만들기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며, 미술 공연 및 키다리 피어로 풍선 나눔도 진행된다. 곤충박물관 생태 온실에서는 5월 25일까지 '나비 관찰 체험전'이 운영될 예정이다. 나비의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으로 이어지는 완전 변태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김현영 무주군청 시설체육운영과 반디휴양팀장은 "가정의 달 반디랜드를



무주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반디랜드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무주군>

방문하는 어린이와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체험과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라며 "25일까지는 휴무 없이 정상 운영하는 만큼 많이들 오셔서 즐겨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임실군, 천연 공예 프로그램 '손끝공방' 참여자 모집

다문화가족·외국인·지역주민 이웃 간 소통과 어울림 경험

임실군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지역주민이 함께 천연 생활용품 만들고 나누며 이웃 간 따뜻한 소통과 어울림을 경험할 수 있는 천연공예 프로그램 '손끝공방' 참여자를 모집한다. '손끝공방'은 이웃과 함께하는 천연공예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내달 11일

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10회기에 걸쳐 임실군 가족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천연주방세제, 천연염유 유연제, 수분크림, 크리스탈팜 눈꽃 캔들, 커피샴푸, 천연헤어컨디셔너, 디퓨저, 천연젤라틴, 바디워시, 수제비누 등 다양한 천연 생활용품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활동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공예 체험을 넘어 참여자들이 각국의 문화

와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어울림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프로그램 중 제작한 수제비누와 천연 젤라틴은 지역사회 나눔 봉사도 이어져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참여자 모집은 지난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되며,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접수로 가능하다. /임실=한병열 기자



## 산림조합 나눔재단, 장수군에 이웃돕기 물품 기탁

장수군은 29일 (재)산림조합 나눔재단이 10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된 물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탁된 물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재)산림조합 나눔재단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나눔에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며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북부권 4개 면, 게이트볼 친선 경기 열어

임실군 관촌면 전전후 게이트볼장에서 지난 25일 북부권 4개 면(관촌, 신평, 신덕, 운암)게이트볼 동호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며 우의를 다지는 게이트볼 친선 경기가 열렸다. 이날 친선경기는 관촌면 게이트볼 동호회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북부권 4개 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이트볼 동호회원 50여 명이 참여하여 건강 증진과 친선 도모 그리고 소통과 화합을 나누는 장이 되기도 하였다. 친선 경기에 참여한 동호회원은 '게이트볼이 운동도 되고 사람들과 교류도 할 수 있어서 승패보다 분위기가 좋아 더 즐거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진안군, 드림스타트 가정 대상 부모교육 진행

진안군은 드림스타트 부모 11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부모, 행복한 아이'를 주제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3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가족센터 2층 교육실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교육은 '행복한 부모, 행복한 아이'를 주제로 실시했다. 교육은 자녀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양육 방법과 긍정적인 양육 태도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가족센터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MBTI 성격 유형 분석을 활용해 부모와 자녀 간 성격 및 기질 차이를 이해하고, '나는 어떤 부모인가'에 대한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부모 역할과 양육 태도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여 부모들 간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어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부모는 "아이를 이해하는 방법과 소통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다른 부모들과 경험을 나누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무주군, 민원 담당 공무원들 건강 챙긴다

힐링·소통 프로그램 진행 호응

무주군은 지난 28일과 29일 무주상상단지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심신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무원들의 정서적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정신건강 검사'와 '퍼스널 컬러 진단', '페이스요가', '소금빵 재방' 등의 체험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특히 스트레스 측정과 정신건강 검사, 1:1 상담은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상담사가 진행해 신뢰감을 더

했다. '퍼스널 컬러 진단'과 '페이스요가' 시간 역시 건강 완화의 기회가 됐다. 참여 공무원들은 "내면을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 동참했는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주민과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더 꾸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9일에는 공감·소통 간담회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민원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더 나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임실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임실군(군수 심민)은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과 동시에 내달 29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총 10,062호이며,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균형 재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균형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특성 및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증여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진안군, 위기 속 소상공인 살리기 민·관·공 맞손

소상공인 지원 협력 강화

진안군은 경기 침체와 대외 경제 불확실성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8일 '진안군 민(民)·관(官)·공(公) 협의체' 2026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안군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진안군지부, 진안고원시장 상인회, 진안연장산업단지 협의회, 홍삼한방농공단지 협의회, 농협은행 진안군지부, 전북은행 진안지점 등 7개 민간 단체와 진안군,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경제 불안 장기

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등 대외적 경제 여건 악화가 지역 소상공인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협력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또한 관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 대외 경제 환경 변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민·관·공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역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유승호 정읍시 도시과장, 모친상 조의금 장학금 기탁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정읍시청 유승호 도시과장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난 21일 모친상을 치르며 받은 조의금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뤄져 훈훈한 감동을 더하고 있다.

유승호 과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원불교 북일교당, 익산시에 사랑의 나눔보따리 전달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익산시 신동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전달됐다. 신동은 29일 '원불교 북일교당'이 행정복지센터에 찾아 150만 원 상당의 나눔보따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원불교 대각교철 111주년을 맞아 창립 정신을 되새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으로 구성된 나눔보따리는 지역 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소외계층 3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은중 원불교 북일교당 교감교무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월명동지사협, 어린이날 맞아 케이크 쿠폰 전달

군산시 월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0일 어린이날을 맞아 관내 저소득 가정 35가구에 5만원 상당의 케이크 쿠폰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협의체의 2026년 특화사업인 '꿈 뚝뚝! 사랑담뚝! 날마다 우리날'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임광빈 민간위원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아이들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KH한국건강관리협회, '생애주기별 가족 건강' 중요

가정의달맞이가족건강점검

최근 가족 구성원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건강검진과 예방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유로는 가족 건강은 세대 간 생활습관과 유전적 위험요인이 맞물려 나타나고 있어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점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아 비만 여부와 시력 저하, 성장 발달 상태, 자세 및 척추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장년층은 업무와 육아 등으로 건강관리가 뒤로 밀리기 쉬운 만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체중 변화를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중장년층은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등 주요 암 검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암 검진 외에도 골밀도, 근감소증, 인지기능 변화 등 노년기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도 추가로 살펴야 한다. 특히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암 병력이 있는 경우 본인의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일반적인 권고 시기보다 앞서 검진과 추적관찰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가족 내 동일 암 발생률은 평균 5.9%였으며, 암 종별로는 위암이 8.1%로 가장 높은 가족력 연관성을 보였다.

따라서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과 자녀의 건강을 함께 챙길 때는 단순히 현재 불편한 증상에 대

**가정의 달, 생애주기별 건강점검 필요**

<p><b>소아청소년</b></p> <p>성장발달, 비만, 시력, 척추건강 등</p>	<p><b>청장년층</b></p> <p>혈당, 혈압, 지질 이상, 간기능 등</p>
<p><b>중장년층</b></p> <p>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등 주요 암 검진</p>	<p><b>고령층</b></p> <p>골밀도, 낙상 위험, 근감소, 인지기능 변화 등</p>

KH 한국건강관리협회

생애주기별 가족별 건강검진 중요 <사진=건강관리협회>

생활습관, 과거 검진 이력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과장) 박수진에 따르면 가족 건강은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세대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할 일상의 영역"이라며 "가정의 달을 계기로 각 구성원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가족력과 생활습관에 맞는 건강 점검 및 관리를 실천하길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고창 부안면 조양마을, 리마인드 웨딩촬영 진행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 주관 텍시도·드레스 입고 활짝

고창군이 지난 28일 부안면 조양마을에서 부안면 조양마을 주민 20여명을 대상으로 리마인드 웨딩 촬영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제대로 된 웨딩사진 한 장을 선물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선물했다. 마을 주민들은 텍시도와 드레스를 갖춰 입고 수줍은 미소와 함께 촬영된 사진은 향후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은 "어르신들이 드레스와 텍시도를 입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마을 주민들이 함께 웃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전기후 부안면장은 "조양마을 어르신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준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에 감사드리다"며, "부안면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장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이 지난 28일 부안면 조양마을에서 부안면 조양마을 주민 20여명을 대상으로 리마인드 웨딩 촬영행사를 진행했다 <사진=고창군>

남원산림조합, 장애인 결혼 가정에 냉장고 선물



남원시는 남원산림조합이 늦은 결혼식을 올리는 장애인 부부에게 지난 28일 냉장고(시가 690천 원)를 선물하며 부부의 앞날을 축하했다고 전했다.

사)꿈드래장애인협회 주관 합동결혼식에서 29일 도내 12쌍이 결혼식을 올렸으며 남원시에서

는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장애인 부부 1쌍이 늦은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이 부부가 뒤늦은 결혼식을 한다는 소식을 접한 남원산림조합에서 부부에게 적합한 결혼 선물을 증정했다.

허윤영 조합장은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정성껏 마련한 선물이 두 분께 큰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축복을 기원한다"라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남원산림조합과 소속 단체들은 평소에도 축산물, 식품 후원 등 지역의 소외계층 지원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남원=김종원 기자

북익산농협, '2026년 대학생 장학금' 전달

북익산농협은 29일 본점 2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 자리에서 북익산농협은 16명의 조합원 및 조합원 자녀들에게 100만원씩의 대학생 장학금을 전달했다. 금번 행사는 고물가 시대에 교육비 부담을 겪고 있는 조합원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익산농협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지역 농업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 고산농협, 소비자 맞춤형 농촌체험 프로그램 실시

완주 고산농협은 지난 28일 고산면과 비봉면 일대에서 광명농협 고향주부모임 회원 및 임직원들과 함께 올해 첫 소비자 맞춤형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의 지원으로 고산농협에서 매년 실시하는 소비자 맞춤형 농촌체험 프로그램은 도시의 소비자에게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농촌에는 활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농협의 농심전신 운동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날 농촌체험 프로그램은 상주대 제과작업 및 하우스 정리 등 일손돕기와 딸기 수확 체험을 실시하였으며 고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하여 산지의 신선하고 우수한 농산물 등을 알아보는 시간 등으로 준비됐다.

행사에 참여한 광명농협 고향주부모임 회원은 "농촌에 내려와 농촌체험을 해보고 경치가 좋은 곳에서도 해보니 오늘 하루 힐링하는 것 같다고 프로그램을 준비해준 고산농협 임직원에게 감사하다며 다음에도 또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인사 (4월 29일 자)



- ▲ 국민연금공단  
형승현 신임 기획이사 임명  
임기: 2026년 4월 29일 ~ 2028년 4월 28일
- 학력  
일본사회사업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2009)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1996)  
서울 화국고등학교(1988)
- 주요경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국장 (2025.12.~2026.04.)  
국무조정실 인구전략기획부설립추진단 부단장 (2024.10.~2025.1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복지행정지원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2021.10.~2024.1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기획조정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인구정책총괄과장(2009.02.~2021.10.)  
행정고시 제39회(1995)

**우리건물 화재예방 안내**

- 콘센트에 다양한 플러그 사용 금지
- 온열기구 미사용시 전원 OFF
- 전자기기에 물 닿지 않게 하기
- 콘센트 옆 화기배치 금지

〈一事一言〉

18일의 멈춤은 '초격차' 삼성의 부고장이 될 것인가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전쟁터에서 적군과 대치 중인 병사가 보상으로 적다는 이유로 총구를 거꾸로 돌린다면 이를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그것은 권리 주장이 아니라 명백한 이적 행위이자 배신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삼성전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 갈등이 딱 그 꼴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주도권을 놓고 전 세계가 사활을 건 '초격차 전쟁'을 벌이는 엄중한 시기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에 달하는 대략 45조 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심지어 노조 간부는 SNS를 통해 파업 시 3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사실상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협박에 가까운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

우선 노조의 요구 조건부터가 상식을 한참 벗어나 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내놓으라는 주장의 기저에는 '회사의 수익은 오직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지독한 자기중심적 사고가 깔려 있다. 묻고 싶다. 삼성전자의 수익이 오직 라인에 선 노동자들의 망치질과 납땀으로만 만들어진 것인가.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진의 밤샘 연구, 경영진의 과감한 선제적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지탱해 준 국민적 성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삼성이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더욱이 노조에 묻고 싶은 본질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만약 회사가 유례없는 불황으로 수조 원의 적자를 냈을 때, 노조원

들은 그 손실을 함께 감수할 용의가 있는가. 수익이 날 때는 '내 몫'이라며 45조 원을 요구하면서, 적자가 날 때는 '경영진의 책임'이라며 뒷집을 지는 행태는 비겁함을 넘어 파렴치하기까지 하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겠다는 심보가 과연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적자의 고통은 나누지 않으면서 과실만 독식하겠다는 발상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기주의의 극치다.

반도체 공정은 단 1초의 멈춤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산업이다. 과거 평택 사업장에서 단 28분간 정전이 발생했을 때 입은 손실만 500억 원에 달했다. 라인이 멈추는 순간 그 위에 걸려 있던 수만 장의 웨이퍼는 고스란히 쓰레기통으로 향한다. 노조가 예고한 18일간의 총파업이 현실화된다면 그 피해액은 30조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이는 단순히 삼성이라는 한 기업의 손실이 아니다. 삼성에 납품하는 1,700여 개 협력사와 그곳에 종사하는 수만 명의 노동자, 그리고 연쇄적인 수출 타격으로 이어질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대한 '경제적 테러'와 다름없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0% 가까이를 담당하며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가장 큰 축이다. 이런 기업을 상대로 파업을 빙자해 천문학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범죄에 가까운 행위다. 노조의 정당한 권리 주장도 기업이 존재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는 법이다. 회사가 무너지고 시장을 TSMC

나 인텔에 빼앗긴 뒤에 받는 성과급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고객사들이 '파업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삼성에 소중한 물량을 맡길 리 만무하다. 노조가 휘두르는 파업이라는 칼날은 결국 삼성의 초격차를 도려내고, 그 반자리를 경쟁국들이 채우게 만드는 자해 행위가 될 뿐이다.

'초격차'라는 자부심이 '초유의 섀도우'로 변질되는 순간, 그 피해는 노사 양측을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삼성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린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노조 지도부는 자신들이 휘두르는 망치가 부수고 있는 것이 공장의 기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도자는 권리를 말하기 전에 책임과 도덕을 먼저 살펴야 한다. 노조 지도부 역시 마찬가지다. 25만 삼성 가족과 그에 딸린 수십만 명의 생계, 그리고 위태로운 한국 경제의 현실을 본다면 45조 원이라는 허황된 요구와 30조 원 피해라는 협박은 당장 거두어야 마땅하다.

지금 삼성이 서 있는 자리는 샴페인을 터뜨릴 자리가 아니라, 낭떠러지 끝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하는 사지(死地)다. 노조는 부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느 우매함을 멈추고, 상생의 길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은 더 이상 노조의 탐욕에 국가 경제가 인질로 잡히는 꼴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독자투고

'지하주차장 차량 내 절도',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내 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된다. 차량 내 절도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차량 내에 보관된 중요한 서류나 개인정보의 유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습관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차량을 주차할 때는 반드시 문이 제대로 문이 잠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잠금 장치는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예방 수단이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하차 후에는 문뿐만 아니라 창문도 모두 닫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차량 내부에 귀중품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절도범들은 차량 내에 보이는 물건을 보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과 노트북, 스마트폰, 지갑 등 눈에 띄는 물건은 차량에 두지 말고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주차장소 선택도 중요한 요소다. 가능한 CCTV가 설치된 곳이나 밝은 장소를 이용

하고, 사각지대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간 주차할 경우 차량 위치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이웃 간의 관심과 협력 역시 필요하다. 주차장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목격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차량 내 절도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전주덕진경찰서 여의파출소장 손세정

사설 '시스템 공천' 어디가고 '심기 경선'만 남았나...전북 모욕 말라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이 파행을 거듭하며 '민주주의의 실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천명해 온 '공정한 시스템 공천'이라는 원칙이 전북에서만큼은 어떻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중앙의 리더십이 전북에만 오면 원칙을 잃고 계파의 이익과 특정 인물의 심기를 살피는 '심기 경선'으로 전락했다는 도민들의 분노는 이제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 대통령은 그간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인물 발굴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전북지사 경선에서 보여준 중앙당 지도부의 행태는 과연 시스템에 의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68만 원 대리비를 이유로 현직 지사를 단 12시간 만에 '기습 제명'한 칼날이, 제3차 식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특정 후보 앞에서는 무뎠다 못해 면죄부로 변했다. 이것이 이재명식 시스템인가, 아니면 전복을 특정 계파의 전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리더십의 발로인가.

무엇보다 비정한 것은 동료 의원의 절규를 대하는 태도다. 불공정 경선에 항의하며 12일간 단식하다 저혈당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 나간 안호

영 의원을 향해, 정청래 지도부는 끝내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동료 사경을 헤매는 농성장을 뒤로하고 '선상 회의'를 떠나는 지도부의 모습에서 도민들이 본 것은 '소통'이 아닌 '폭거'였다. 전북은 무조건 밀어줄 테니 밟아도 된다는 오만함이 아니고서야 감히 이토록 잔인할 수는 없다.

야당의 무능에 안주해 벌이는 이러한 '그들만의 리그'는 결국 전북 민심의 이반을 불러올 것이다. 전북 도민은 민주당의 소모품이 아니다. 중앙의 리더십이 외치는 정리가 지역의 현장에서는 불공정한 침묵과 편파적인 가위질로 변질되는 상황을 도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원칙 없는 경선, 사람에 대한 예의조차 없는 리더십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에 경고한다. 전북을 '만만한 표밭'으로 여기며 시스템을 농단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리더십이 전북에서 '실패한 리더십'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고 도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민심을 잃은 정당에게 미래는 없다. 전북의 자존심을 짓밟는 대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의시

봄길 /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시인 약력 : 1950년 경남 하동 출생.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석굴암을 오르는 영화'로,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청성대'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위령제'로 각각 당선됐다. 1979년 첫시집 '슬픔이 기쁨에게'를 출간했다. 제3회 소설시문학상, 제10회 동서문학상, 제12회 정치운동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원래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8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변화, 전북타임스가 함께 합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9600



# 남원 춘향제, 4월 30일 대장정의 막 올린다

###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 주제 4월 30일~5월 6일 글로벌 K-페스티벌 개최

남원의 봄이 춘향의 향기로 다시 피어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 축제이자 K-로맨스의 성지인 제96회 춘향제가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남원 광한루원과 요천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올해 춘향제는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라는 주제 아래,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축제는 100회 춘향제를 향한 빌드업으로서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역대급 규모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전국의 관광객들을 유혹할 전망이다.

축제의 서막은 4월 30일 저녁, 춘향제의 꽃으로 불리는 ‘춘향선발대회’가 장식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미인을 뽑는 이 대회는 특설무대에서 화려한 조명과 함께 축제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린다.

이어 5월 1일에는 경건한 춘향제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막 행사가 거행된다. 개막식은 자



매결연 30주년을 맞이한 중국 영성시 공연단의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 정명희와 두렌스 무용단이 선보이는 화려한 주제 공연이 개막의 열기를 달구고, 남원시립예술단의 합동공연 ‘시민, 춘향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일장춘몽 콘서트’에는 대중가수 김 용

빈, 김태우, 송하예 등 초조화 라인업이 출격해 남원의 밤을 뜨겁게 달구며, 밤10시경 펼쳐지는 남원의 밤하늘을 수놓을 대규모 개막 불꽃쇼로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봄밤의 낭만을 선사한다

축제 기간 내내 광한루원과 요천 일대는 거대한 공연장으로 변모한다. 5월 2일부터 5일까지 이어지는 ‘일장춘몽 콘서트’는 ‘기쁨의 선물’, ‘결기의 울림’, ‘사랑의 멜로디’라는 세 가지 테마로 매일 새로운 감동을 전한다. 5월 4일에는 KBS 국악한마당이 열려 전통의 깊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다. 또한 몽골, 이집트, 태국 등 세계 각국 민속 공연단의 이색적인 무대가 매일 펼쳐져 글로벌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춘향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올해 춘향제의 또 다른 주인공은 입과 눈이 즐거운 먹거리다. 남원시는 먹거리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본코리아와 협업한 ‘더본존’을 운영한다. 고품질의 남원 지역 특화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곳곳의 푸드트러거와 경외상가의 청년부스는 젊은 감각의 이색 메뉴들을 선보이며 축제장에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예술과 체육의 향연도 이어진다. 제53회 대한민국 춘향 국악대전과 대통령상 승격에 빛나는 제29회 대한민국 율목공예대전이 열려 전통 예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와 연계된 다양한 체육행사 또한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사랑의 광장에서 ‘어린이날 대축제’가 열려 드론 체험, SW 체험, 매직쇼 등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판소리 체험, 한복 입기, 가훈 써주기 등 오감을 만족시킬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야간 프로그램도 강화하여 피오리움 달빛정원 일원에는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키즈 나이트 페스타’가 운영된다. 버블&솜사탕 퍼포먼스를 비롯해 마술공연, 어울림스테이지, 키즈 빛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축제의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남원시는 5,00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스마트 교통 시스템 및

구석구석 셔틀버스를 운영해 관광객들이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7일간의 대장정은 5월 6일, 김혜순 명인의 한복 퍼포먼스와 ‘흥의 태동’ 폐막 공연, 그리고 피날레 불꽃놀이로 화려하게 마무리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춘향제는 남원의 소중한 전통 자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는 동시에 편리한 인프라를 통해 모든 세대가 호흡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뜨겁게 있는 공연과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남원에서 봄날의 진수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